

감염병 확산과 가구의 경제 변화

이 승 호*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는 단연 '코로나19(COVID-19)'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의 등장에 모든 삶이 움츠러들었다. 연초만 해도 조금 참으면 지나가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는 안정과 확산을 거듭 반복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여 사회경제적으로도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많은 것들이 감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이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일이 끊겨서 당장의 생계유지가 걱정이고, 누군가는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을 고민한다. 사람과 마주하거나 집단으로 향유하는 모든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다. 일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 지출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혹자는 과거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평가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방역체계를 갖추고, 사회안전망을 긴급히 보완하면서 감염병과의 장기전에 돌입하였다. 한편으로는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하여 격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며,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의 확산 추이가 길어질수록 그로 인한 개별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가구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가구 지출이 조정되는 경로로 가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저축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우선 대응하므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에 비해 지출 변화가 적은 편이다. 그런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양상이 관측된다. 대면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에서의 고용충격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적은 가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소비 지출 변화가 발생한다. 방역 수준을 높일수록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그로 인해 고용충격이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eesh99@kli.re.kr).

심화되어 소비 지출이 더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 추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가구의 소득 감소 완화 및 소비 지출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기의 2단계에서 3단계를 거쳐 현재는 5가지 단계로 세밀화되었고, 각 단계 안에서도 감염병 현황에 따라 세부 내용을 조정하면서 적용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직접적으로 고용충격을 받은 집단으로 한정하여 지급되었지만,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10월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었고, 최근에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보조금의 대상과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은 확산 추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감염병 상황과 다르고, 소득 감소보다 더 큰 지출 감소가 관측된다는 점에서 다른 경제위기 당시의 변화와 차이가 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면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이념적인 대립을 넘어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구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보인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는 작업이 이후의 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호 『노동리뷰』 특집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완화된 과정에서의 가구 경제활동 변화 추이를 분석한 두 편의 연구를 소개한다. 두 편의 글은 각기 다른 분석자료를 이용했지만, 공통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회복되었음을 보여 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위축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측되었고, 반대로 감염병 확산이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회복 추이가 나타났다. 가구의 소비 지출 회복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보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컸지만, 사용된 정부 지출 규모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용 기한이 제한된 보조금의 지급은 소비 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바로 관측되었고, 지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가구의 지출도 증가시켰다.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가구 경제의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이후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KLI**